항상 환란 덕분에 항상 기쁨

(다니엘 9:1~27)

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항상 환란 덕분에 항상 기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항상 환란 덕분에 항상 기쁨'
오늘 본문에는 칠십 이레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칠십 이레란 70에 7을 곱한 숫자로써 490년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는 이 기간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의 두 기간에는 7 이레와 62 이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현되지 않는 중간기가 있고 마지막 한 이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먼저 마지막 한 이레에 대해서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한 이레는 7년을 말합니다. 이레가 년수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역사적 사건들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한 이레에 관해서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7년 대환란과 연결시켜서 해석합니다. 7년 대환란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우주적 환란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이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시기를 임박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을 임박한 것으로 여기셨음을 일종의 착오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임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의 마음가짐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언젠가 먼 훗날에나 일어날 것으로 여기는 동안에 신앙은 바로서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면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에서 나그네라는 소재를 통해 베드로의 구원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마음에 두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재림을 임박한 것으로 여기는 삶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의 활동기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환란의 참 의미가 의문시됩니다. 환란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의 상실입니다. 상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해로 인해 빛이 있고 달로 인해 밀물 썰물이 생기고 별들로 방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으로 본다면 약 2500년 전 다니엘의 예언 이전에 죽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어떤 장, 어떤 구절도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이 순간 읽는 사람에게 의미를 줍니다. 이 점을 놓치면 성경을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오해하여 잘못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 읽는 자에게 의미를 주는 책이라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 성경은 불필요한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설명이 아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이란 읽는 사람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성경 자체의 내용을 풀어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석은 읽는 사람의 처지에 대해 성경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7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나 마태복음 24장 등에서 나타난 종말론적 기록들을 미래에 일어날 한 시점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과거의 사람들이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삶의 내용과 비밀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의 특성이고 목적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환란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해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아브라함

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누가 때리거나 박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쓰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로마의 네로가 교회를 박해했던 것과 같은 고난을 나사로가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고 하신 이유는 부자가 좋은 것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란 곧 가지면 기쁨과 만족이 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이것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규정된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곧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환란과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게서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적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 거지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부자 되어서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핍박과 박해와 같은 환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진짜 환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상실되는 고난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19절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이고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땅에서의 형통과 번영을 약속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에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정착민이 아닌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러한 십자가의 환란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환경에서 어떤 환란이 주어지더라도 마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삶과 무관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

리의 몸이 들어갈 수 없기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는 환란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란이 항상 전제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순교는 엄밀히 말하면 환란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음의 죽음을 통해 환란을 겪었습니다. 이 순교는 몸에 가해지는 고통과 죽음이었지만 이들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몸이 당하는 고통은 진정한 의미에서 환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하신 것은 우주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 하니 환란이고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환란을 자처하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지의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7년 대환란을 미래에 적그리스도로 인해 벌어지게 될 어둡고 무서운 사건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동안에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 곧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자체가 내 마음에서 완전히 상실되어야 한다는 것이 7년 대환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점이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칠십 이레에 관한 환상이 언급된 이유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25장 11~12절이나 29장 10~14절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칠십 년 만에 해방되리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실제로 BC.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 BC.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 포로귀환이 시작될 때까지 칠십 년을 채우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칠십 이레의 환상을 본 것은 BC.538년으로 추정되는데 포로귀환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해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었던 다니엘로써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질 해방의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은 포로로 잡혀 왔으면서도 해방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과의 연결이 동족들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19절까지 중보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칠십 이레의 환상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 환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민들의 포로 됨과 해방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

니다. 결론부터 쉽게 말씀드리자면 칠십 이레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선민이라면 그들이 포로상태에서 해방되는 과정이 칠십 이레라는 상징적 기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죄악 된 세상으로부터의 포로에서 해방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에 구원관에 의하면 세상의 가치들을 좋아해서 나그네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심판의 이유이라고 했습니다. 선민들로 비유하자면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산 결과 바벨론의 포로 된 상태가 바로 죄악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죄악의 상태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칠십 이레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고자 한다면 해석의 방향에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나타난 일곱이레는 BC.538년 고레스 왕 원년에 해방의 명령이 이루어지면서 성전재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포로귀환해서 성전재건과 성벽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BC.444년까지 한 100여 년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육십이 이레는 성전이 재건 된 뒤로 예수님 탄생까지의 기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레로 표현되지 않는 중간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AD.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에 담겨있던 모든 의미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이레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70년 이후로 2000년까지 지속되는 기간으로 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맞추어본다면 일곱이레, 육십이 이레, 한 이레로 표현된 기간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100년쯤에 해당하는 기간을 일곱이레라고 했고, 400년쯤 되는 기간을 육십이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에 해당되는 기간이 한 이레로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으로부터 1000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마지막 한 이레는 3000년간을 지속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에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준공될 것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것 등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까지 있게 될 세계사의 전개 과정이나 역사적 시기가 아닙니다. 이 역사적 재료를 삼아서 선민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세계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의 포로로 잡혀 살고 있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칠십 이레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칠십 이레의 환상은 선민 각자의 삶에서 나타날 환란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한 이레에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환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적그리

스도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환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잠식되기를 바랍니다. 이 칠십 이레 전체의 환상이 환란의 과정이고 또한 이 환란을 거침으로써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란인 이유는 곧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 칠십 년이 걸린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칠십 이레의 환상은 해방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며 해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를 통해 해방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계사의 진행 판도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일주일 뒤에 일어나든 1000년 뒤에 일어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포로로 잡힌 마음이 죽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은 곧 마음에서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지위를 비롯한 모든 가치에서 해방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해방된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모든 관계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 환란은 우리가 자처해야 하는 환란이며 기쁨의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이때의 해방은 일본의 통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우리의 해방은 세상의 통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되는 이 과정이 환란입니다. 일본의 통치가 없어지는 것은 놀라운 해방의 사건으로 여기면서, 세상의 통치가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한다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환란은 나쁜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 지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하에 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듯이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배우자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배우자가 들어온 마음을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이 과정이 곧 환란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건입니다.
항상 기뻐함은 항상 환란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에게 환란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의 형통과 번영을 약속합니다. 환란이 시험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완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로 갈 기회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환란이 다가오면 세상의 가치가 없

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붙잡고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으면서 해방을 두려워하며 제발 좀 더 다스려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육체적 환란은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란을 주실 때에 세상에 대한 해방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만을 두려워합니다. 해방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히려 환란은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세상을 붙잡고 있다면 식민지로 남아있기만을 바라며 해방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가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길에서 일탈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환란을 주실 수가 있어?”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환란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런 환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란의 과정 뒤에 해방의 기쁨과 만족을 주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봅니다. 다니엘의 칠십 이레의 환상은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선민 각자가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칠십 이레의 근본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칠십 이레, 육십이 이레, 중간기, 한 이레에 속한 네 기간들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삶의 환경에 환란이 임하든지 안 임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통해 마음에서 세상이 사라지는 항상 환란을 자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환란은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한 항상 환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환란을 항상 기쁨의 어머니로 삼고, 쉬지 않고 기도함의 어머니로 삼고, 범사에 감사함의 어머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환란은 기쁘고 복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해방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란을 자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에 환란처럼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이 되실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포로 된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환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식민지 통치를 지속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항상 환란을 자처함을 통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